

특별취재

김제성덕면 사회단체 아우회로

'지평선축제 홍보나들이' 떠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성덕면 사회단체들이 아우회를 떠나 김제지평선축제 홍보나들이에 한창이다.

이번 축제는 5년 연속 대표축제 도약을 위한 축제로 세계 속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 세대를 아우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가장 한국적인 농경문화 콘텐츠 장점을 살려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즐기며 체류하는 축제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에 걸맞게 성덕면 사회단체들은 더위를 피해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가지 릴레이 방식으로 구석구석까지 김제지평선축제를 홍보하고 있고,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등을 배포하며 축제 홍보대사가 되어 김제를 알리고 있다.

특히 사회단체들은 김제시 시민으로서 이런 대표축제가 김제에서 개최되는 영광이며 8월 달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8월 2일 성덕면 산악회를 시작으로 주민자치위원회까지 두루두루 곳곳을 홍보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며,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



정우면, 입주기업체 대표간담회

정읍시 정우면(면장 권철현)은 지난 12일 정우면 입주 기업체 정우산업 등 대표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읍인구 15만 회복 및 기업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우면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정읍시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인구 15만 회복을 위한 관내 기업체 임직원 정읍주요사업 협조 등 시장전환에 대한 홍보 및 산업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상호간에 모색하고 공유하고자 정우면 주최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들을 위해 추진 중인 기업 지원정책이 소개됐으며 인력과 교통, 관료, 환경, 자금 등과 관련한 분야별 지원책이 안내되어 참가한 기업체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의 장이 되었다.

김제교월동, 주민등록 특별조사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김태환)는 지난 8월 8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교월동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서는 공동주택 통일 주소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사망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허위 전입 신고자 및 무단전출자에 대해 중점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조사 기간내 주민등록과 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이 최대 3/4까지 감되는 점에 대한 주민홍보를 통해 대상자들의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정읍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교육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휴가철 보행자 교통사고 및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2일 아동안전지킴이 어르신 6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그에 따른 어르신 교통사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고는 전체 사고 발생의 58%이상 이중 피해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별로 변산해수욕장이 2만4천여명, 고사포해수욕장이 7만여 명 격포해수욕장이 5만6천여명 모항해수욕장이 6만8천여명, 위도해수욕장이 7천4백여명등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부안해수욕장 올해도 인기

변산·고사포 등 22만5천여명 다녀가... 전년대비 28.5% 관광객 증가

산·들·바다와 노을이 어우러져 피서지로 각광을 받는 부안 관내 해수욕장이 올해 22만5천여 명이 다녀가 작년 대비 2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온다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연일 지속되는 등 해수욕객 유입 요인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변산해수욕장의 개장에 따라 지난해 17만5천여명보다 5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욕장별로 변산해수욕장이 2만4천여명, 고사포해수욕장이 7만여 명 격포해수욕장이 5만6천여명 모항해수욕장이 6만8천여명, 위도해수욕장이 7천4백여명등이다. 지난달 1일 개장되어 지난 15일까지

46일 동안 부안군은 3,400여 명의 안전요원이 투입되었으며, 부안해양경비안전서 및 소방서, 변산반도 국립공원, 경찰서와 상호 협력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한 건의 사망사고 없이 지난 16일 해수욕장을 폐장하였다.

이는 여름철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을 지키려고 부안군과 해양경비안전서, 소방서, 변산반도 국립공원 사업소, 해병대부안군정우회,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안구조대가 힘을 모아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 '익수자 발생' 가상 상황을 부여해 부안해양경비안전서의 시연 및 구조 훈련, 심폐소생술, 망루견사범등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다. 심문식 부안군 해양수산과장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해수욕장 합동훈련과 상호협력을 통해 상황대응 능력을 보강함으로써 단 한 건의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라며 "올해 여름해수욕장 운영으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내년 해수욕장 운영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해 서해안의 명품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속된 무더위 속 시민안전에 최선을”

황배연 김제시 안전개발국장, 폭염대비 T/F팀 격려

황배연 김제시 안전개발국장은 지난 12일 청내에 설치된 폭염대비 T/F팀을 찾아 폭염대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련부서 직원들을 위로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황배연 국장은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해 우리시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크게 없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협업부서 직원들의 노고와 있기에 가능하다"면서 "폭염절정이 8월16일 전후로 예상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시민들이 폭염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담당업무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참석된 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한편, 폭염대비 T/F팀은 관련부서간 협력체제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폭염 취약계층 특별보호 및 관리와 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농축

수산 피해예방 및 조사, 그리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보고와 초동조치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 김제시는 관내 261개소 무더위쉼터 에어컨 등 냉방기 점검 실시, 폭염특보 발생시 이통장들에게 폭염대비 안내메시지 발송 폭염대비 홍보용 부채 15,000개를 261개소 무더위쉼터에 배부완료하였고,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방문(전화),

시내 인구밀집지역 살수 실시, 그리고 폭염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는 "폭염이 막바지로 가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방심하지 말고, 수시로 물을 자주 마시며 가장 무더운 오후시간(12:00~17:00)에는 휴식을 취할 것"을 부탁하였다. /김제=곽태기 기자



이번 워크숍에는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각 분야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 강사 30여명이 참여했다.

학교 밖 체험활동강사 역량강화 나서

정읍시-서울대학교 교육협력사업 일환으로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는 지난 12일 정읍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밖 체험활동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각 분야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 강사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일반적 교수법 통해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교육 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체험활동 교육 강사들의 교육학적 소양을 길러줌으로써 학교 밖 수업의 질 향상 및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시와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사업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추진 실시한 워크숍은 정읍학교 이해하기, 감동과 울림이 있는 코칭 교수법 학생들이 추천하는 수업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전문교수법적 지식을 공유하고 강의를 통해 도출된 점을 분묘의도를 통해 발전방향을 이끄는 워크숍이라서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정읍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분야 협력을 위해 서울대와 업무협약을 지난 2014년 4월 체결하여 서로 상호 협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16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등으로 학교별 체험활동 운영 지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학교 밖 체험활동 강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 성공적 정착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태환 기자

정읍시 '영업장 문 열고 냉방영업' 합동 단속

정읍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에 따라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등 에너지 사용제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폭염지속 및 하계휴가 종료 등의 이유로 냉방수요가 증가해 전력 공급이 부족해져 에너지 사용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정읍시는 읍면동에서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안내토록 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정읍시 주요영업장 주변으로 4구역으로 나누어 상동주민센터 상업지역, 샘고을시장 주변지역, 수성동 중앙로, 시외버스터미널 및

역전지역에 큰 영업장을 주변으로 집중 지도 및 단속하고 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 경고 후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4차 이상-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읍시에서는 공공기관 냉방문도 규제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에 따라 시 공공청사에 대해 실내온도 28℃ 이상을 유지토록 관리하고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gsanmyeongju.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a cartoon bear mascot,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s and prices.